

■ 거대도시 멕시코 시티에서 숨 쉬는 문화

— 멕시코 여행 (2)

김 수 정

과나후아토에서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치자마자 멕시코시티를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멕시코시티는 1521년 스페인의 코르테스에 의해 정복되고 파괴된 인디오 문명도시 테노치티틀란의 폐허 위에 들어선 도시다. 멕시코의 정치·행정·역사의 중심지인 멕시코시티를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런 저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해발고도 2,300여 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고원 도시이자, 아스테카의 옛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이 잠들어 있는 멕시코시티! 숙소에서 짐을 푼 다음날인 1월 3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해서 3일동안 멕시코 시티를 둘러봤다.

레포르마 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소나로사(Zona Rosa)에 숙소를 잡고 처음 향한 곳은 레포르마 거리였다. 소나로사 뒤편에 위치한 레포르마 거리에서 천사탑(앙헬탑)이라고도 불리는 독립기념탑을 보았다. 1910년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탑으로, 황금빛의 천사 상을 얹은 오벨리스크 형식의 기념탑이다. 이 탑은 레포르마 거리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연상시킨다. 탑을 둘러싸고 우뚝 서 있는 HSBC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건물이 세계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에는 탑 내부가 개방된다. 탑 내부에 자리 잡은 좁은 나선형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레포르마 거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침 탑 내부가 보수공사 중이라 올라가 볼 수는 없었다. 탑의 맨 아래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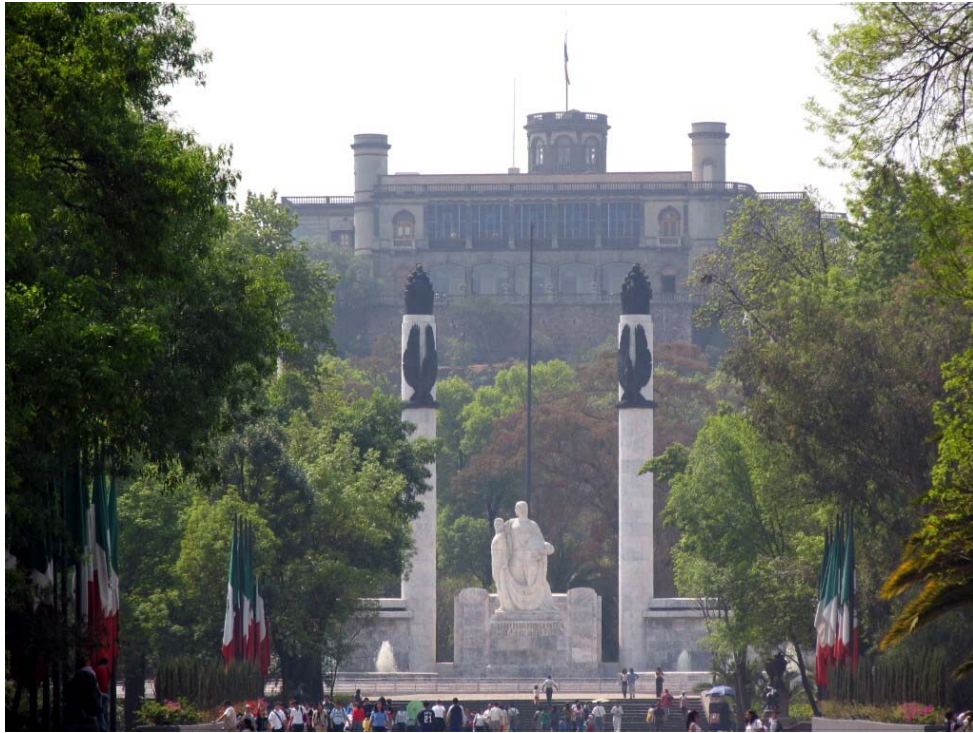
레포르마 거리의 독립 기념탑

서 독립투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부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천사탑 맨 아래쪽을 보고 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레포르마 거리를 따라 서쪽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겨 차폴테펙 성에 도착했다. 차폴테펙 성은 차폴테펙 공원 내에 위치한 궁전이다. 차폴테펙 공원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말공원이다.

이 공원에 소년영웅기념비가 서 있다. 1847년 미군의 침입에 대항하여 이곳을 지키며 싸우다 순국한 육군사관생도들을 기념해 만든 비다. 텍사스주를 합병한 미국은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주와 뉴멕시코 주 등 멕시코의 영토를 더 차지하기 위해 1846년 멕시코를 침략하고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러나 일부 사관생도들은 항복하지 않고 이 성을 방어하다가 전사했다. 이들 사관생도를 기리기 위한 비가 바로 이 소년영웅기념비다.

소년영웅기념비를 지나 얇은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면 차폴테펙 궁전이 나온다. 미국과의 전쟁으로 영토의 3분의 1을 빼앗긴 멕시코에는 한때 개혁의 바람이 불었으나 보수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막시밀리아노가 황제로 즉



차폴테펙 성

위했다. 차폴테펙 성은 황제 막시밀리아노 1세의 궁전으로 쓰였다. 이 성의 2층에 위치한 정원은 로마의 귀족들이 즐겨 찾았다는 폼페이 별장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황제와 황후는 이 성에 거주하면서 멕시코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두 눈에 고스란히 담았다. 막시밀리아노 1세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억압적인 정치를 펼치면서 당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결국 1867년 막시밀리아노 1세는 멕시코 정부군에게 총살당했다. 그 후 이 성은 공화국 대통령들의 거처가 됐다가 최근에는 멕시코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멕시코 역사박물관은 식민지 이전의 문명에 대한 설명과 유물 전시부터 시작해 현재의 공화국 시기까지의 멕시코 역사 전반을 다루고 있다. 과거 아스테카 문명을 비롯한 고대문명에서 이루어지던 인신 공양의 흔적과 유물이 전시되고 있었다. 전시실 곳곳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림과 지도로 같이 설명을 해 주고 있어, 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외국인,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스페인 식민 시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영토 확장 과정과 멕시코 독립의 과정, 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정까지 몇 개의 파트

로 나누어 전시실을 구성해 놓았다. 특히 박물관 내에 벽화들이 많았다. 멕시코 내의 많은 문맹자를 고려하여 그림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다. 멕시코 역사박물관 소장 자료의 상당수가 스페인 식민 시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만큼 스페인 식민지로 있었던 기간이 길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거대한 궁전 안에 자리 잡은 채, 멕시코의 긴 역사를 품고 있는 차폴테펙 성의 역사박물관은 그동안 ‘멕시코는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비해 덜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게 만들기엔 충분한 곳이었다. 자세한 설명과 꼼꼼한 배치, 문맹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박물관보다 더 나아 보이기까지 했다. 차폴테펙 역사 박물관은 멕시코 산맥 속에서 들끓고 있는 용암처럼 열정으로 가득한 멕시코의 저력을 살펴보기엔 충분한 곳이었다.

디에고 리베라 벽화박물관(Museo Mural Diego Rivera)

차폴테펙 성을 나와 레포르마 거리를 지나서 디에고 리베라 벽화박물관에 도착했다. 이 박물관은 과나후아토에서도 만나본 멕시코의 대표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의 박물관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외관은 그렇게 웅장하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랗게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를 접하며 우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벽화 앞에는 편안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소파와 쿠션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라메다 광장에서의 일요일 오후의 꿈〉이라는 제목을 지닌 거대한 벽화는 원래 이 박물관 주변에 위치한 호텔 벽에 있었던 것이다. 1985년의 멕시코 대지진으로 인해 호텔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지도자들의 꿈과 디에고 리베라 자신의 자화상을 멕시코의 역사와 결합시켜 그렸다. 강렬한 색상과 몽환적인 터치로 이 그림은 발표될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의 국민 화가라 불릴 정도로 유명했지만 이 벽화가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가톨릭계에서는 벽화에 삽입된 “신은 없다”라는 문구에 격분했다. 또 한 무리는 벽화에 불만을 갖고 이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벽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정복시대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세기말과 독재 시대, 혁명과 혁명 이후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벽화에는 멕시코의 지도자들 외에도 디에고 리베라의 어릴 때 모습과 현재 모습, 어릴 때 동화책에서 보았다는 해골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내 프리다 칼로의 모습도 담겨 있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은 완성된 벽화에서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스케치 부분에서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프리다 칼로가 동양 사상을 나타내는 음양 구슬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참 동안 벽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나와 2층에 올라가 보니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 외에도 여러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들 작품 가운데 디에고 리베라의 후기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마치 마야나 아스테카의 상형문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림들이었다. 이들 그림은 당시의 원주민 생활상과 오늘날의 원주민 모습을 결부시킨 그림이었다. 한 편의 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디에고 리베라 벽화박물관을 나서자 한가로이 체스를 두고 있는 사람들 뒤로 넓게 펼쳐진 알라메다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알라메다 공원은 1592년에 만들어진 제법 긴 역사를 가진 곳이다. 공원에는 각종 장식용 분수와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 공원 곳곳에서 체스하는 사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 등 멕시코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날 스페인 식민 시대에 종교재판이 행해졌던 곳이지만 오늘날 멕시코시티 시민을 위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노인, 연인, 어린이 등 가족단위로 찾는 사람이 많다. 타일로 만들어진 아담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후아레스 대로 쪽으로 멕시코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베니토 후아레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소칼로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소칼로 광장이다. 족히 10미터는 되어 보이는 멕시코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소칼로의 정식명칭은 ‘헌법광장’ (plaza de la constitución). 세계에서 두 번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큰 광장이라고 한다. 소칼로는 멕시코시티의 심장부다. 고대 아스테카 시대부터 식민지 시대와 현재까지 세 시대에 걸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서 멕시코의 역동적인 역사가 숨 가쁘게 전개된 무대이기도 하다. 원래 고대 아스테카 문명



멕시코 대형 국기가 펄럭이는 소칼로 광장

의 수도 중심부였다가 스페인이 점령한 후 원주민 건물을 모두 파괴한 다음 식민지식 건물을 세웠다. 광장 주위에는 아스테카 유적지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와 대통령궁이 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통령궁을 둘러볼 수 있었다. 멕시코 군은 매일 오전 8시에 소칼로 광장의 국기를 올리고 오후 6시에 국기를 내린다고 한다.

우리가 소칼로를 찾은 날 유난히 사람이 많았다. 눈이 오지 않는 멕시코에서 일종의 ‘겨울 눈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축제 기간 동안 멕시코시티의 명물인 국기 하강식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스케이트장 주변에 마련된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다. 얇은 슬로프 몇 개로 이뤄진 썰매를 한 번 타보기 위해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섰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내리는 눈이 흔한 것이지만, 단 한 번도 눈이 내리지 않는 멕시코시티에서는 이러한 눈 축제〔‘수도의 겨울’(Vierno en la capital)〕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토록 엄청난 인파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소칼로에서 ‘수도의 겨울’ 축제를 보고 나서 대성당 우측으로 걸음을

오키자 원주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념품을 파는 원주민도 있었고 한쪽에서 마치 굿처럼 보이는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스테카 문명의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의 조감도를 새겨 넣은 커다란 구조물이 우리를 맞았다.

향불을 피우고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원주민 의식을 잠시 구경하다가 걸음을 오키자, 대성당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큰 유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1913년 대성당 뒤편에서 빌딩 공사를 벌이던 중 발견했다는 템플로 마요르다. 이 유적은 당시에는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됐다. 그러다가 1979년 수도 공사 중에 무게 8톤의 석판 하나가 출토됐다. 15세기 무렵의 것으로 추정된 이 석판이 아스테카 신화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달의 신 조각상으로 판명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어, 이 유적이 아스테카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중앙신전임이 밝혀졌다.

관람시간이 지나 아스테카의 중앙신전 내부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템플로 마요르를 통해 소칼로의 대성당이나 국립 궁전(대통령궁) 밑에는 아직도 아스테카의 신전과 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었다.



테오티우아칸에 가는 길, 서민 주거지역.

테오티우아칸(Teotihuacán)

다음날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벗어나 오늘의 행선지는 아스테카 문명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 테오티우아칸을 둘러보고 다시 멕시코 시티로 돌아오기로 했다. 멕시코 시티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낮에는 그늘 한 점 없어서 답사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봐 정오를 피해 최대한 일찍 다녀오기로 결정했던 터다. 아침 8시에 민박집을 나와 지하철로 북부역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에 올랐다. 지하철로도 이동이 가능하나 버스가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 편리하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길 양옆으로 흥미로운 경관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리오(barrio)라는 서민 주거지역이었다. 스페인어로 바리오는 주거지역이나 이웃을 지칭하는 낱말이다. 스페인이 지난날 가톨릭의 영향권 안에 있던 국가임을 보여 주듯이, 바리오는 교구를 뜻하는 낱말에서 유래했다. 최근 남미에서 미국으로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주거지역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바리오는 빈민 주거지역을 뜻하는 말로 변질됐다. 그러나, 실제로 멕시코에서 바리오는 중하류층 주거지역을 말한다. 멕시코의 도시 인구 집중률이 60%에 육박하면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섬에 따라 주거지역은 도시 외곽부에 자리 잡고 확장됐다. 따라서 도시로서의 기능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를 보충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그 결과로 형성된 주거지역은 다소 낙후되어 보이는 외관을 띠게 됐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바리오도 1층, 크게는 2층 규모인 사각형의 작은 콘크리트 건축물이 뺄뺄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이었다. 범위도 상당히 넓어서 버스로 이삼십 분을 달리는 동안 길의 양쪽으로 비슷한 건물이 계속 펼쳐졌다. 버스로 약 50분, 마침내 테오티우아칸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높게 솟은 피라미드들이 보였다.

멕시코 시티로부터 북동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이 고대 도시는 기원전 300년 무렵에 시작한 문명의 흔적으로서, 멕시코에서 가장 거대한 역사 유적지다. 전 세계를 통틀어 세 번째 규모의 피라미드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 발굴한 유적으로 미뤄 볼 때 수십만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대 여느 유럽 도시보다 큰 규모다. 넓이만 해도 2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도시 구조는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50년 전부터 시작된 발굴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테오티우아칸에서 단체사진

도시 안에서 가장 큰 구조물은 두 개의 피라미드다. 태양의 신전과 달의 신전으로 불리는 이들 대형 피라미드에는 깃털 달린 뱀 그리고 다른 신화적인 생물체의 상징물이 조각되어 있다. 가파른 피라미드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면 멀리 멕시코시티도 보인다. 이 문명은 7세기에 분명한 이유 없이 몰락했으며 도시는 흙더미에 묻혀 버렸다. 이 유적은 1908년 다시 보수됐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지는 오늘날까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테오티우아칸은 신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테오티우아칸 문명은 멕시코 분지를 중심으로 서기 350~650년 사이 번영의 절정기에 도달했다. 그들이 영위한 정치 형태는 모든 행정을 관할하는 신관을 정점으로 군인·상인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다. 최하층인 직인들도 직종별로 각각의 바리오(지구)에 정연하게 거주했다. 신관 그룹은 피라미드의 건조를 지도하고, 종교제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수학·천문학의 지식을 탐구했다. 훗날 폐허가 된 테오티우아칸을 방문한 아스테카 인들은 장엄한 피라미드 군을 보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신들이 지은 도시라고 믿고, 이곳을 그들의 우주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양과 달의 신화의 주무대로 삼았다.

기대감을 안고 매표소를 지났다. 매표소를 지나자 좌측 멀리 달의 피라



죽은자의 길을 가로질러 달의 피라미드로 향하는 길

미드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달의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넓고 긴 도로가 직선으로 펼쳐져있었다. 이 도로를 아스텍아 인들은 죽은 자의 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거리 양옆으로 세워진 건물들을 무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건물은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 살던 주거지역으로 밝혀졌다. 테오티우아칸을 거의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 큰 도로는 북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15^{\circ} 30'$ 정도 기울어져 있다. 태양의 피라미드가 테오티와 회귀선(연 2회 태양이 피라미드의 바로 위에 오는 날)에 맞추어서 건조됐고 거기에 맞추어서 죽은 자의 길도 조성됐기 때문이다. 북단과 남단이 2.7미터의 낙차가 있으나 경사는 완만하다. 이 넓은 거리는 현재 유적지 안에서만 뻗어 있지만 한때 남쪽으로 더 멀리 뻗어 있었다. 이 남북·동서의 길이 별과 관계가 있다는 설을 발표한 학자도 있다고 한다.

멕시코시티에서의 일정이 생각보다 촉박했기 때문에 먼저 달의 피라미드를 향했다. 달의 피라미드가 태양의 피라미드보다 낮지만 지반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국 고도는 비슷했다. 달의 피라미드가 죽은 자의 길 끝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경우 볼 수 있는 경관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죽은 자의 길을 따라서 달의 피라미드로 향해 걸었다. 피라미드까지 이

동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라틴아메리카 고대문명의 관리 현황, 고대 역사에 대한 연구 동향과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셨다. 또한 그것과 비교해 한국 고대사, 유물·유적 보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다가온 태양의 피라미드 앞에서 간단하게 사진만 찍고 지나쳤다. 달의 피라미드에 도착한 다음 지체 없이 피라미드를 오르기 시작했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의 피라미드는 상층부가 훼손되어서 형체를 알 수 없을뿐더러 등반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중간부까지 올라가서 넓게 펼쳐진 죽은 자의 길—우리가 이미 걸어 온 길이었지만 그 뒤로도 끝없이 길이 이어져 있었다—과 죽은 자의 길 왼쪽에 위치한 태양의 피라미드를 둘러보았다. 걸어오면서는 볼 수 없던 죽은 자의 길 전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테오티우아칸의 건물 배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옛날 화려하고 찬란하던 고대문명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사라진 고대문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피라미드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다가 내려왔다.

일행이 지체하지 않고 일정을 서두른 덕분에 시간에 작은 여유가 생겼다. 앞서 지나쳐 온 태양의 피라미드도 마저 등반하기로 했다. 태양의 피라미드가 유적지 입구와 가깝기 때문일까. 관광객들은 대부분 태양의 피라미드만을 보거나 먼저 오르고 있었다. 피라미드의 정상에 신전이 있던 달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태양의 피라미드는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계단수도 더 많았고 올라가야 할 높이도 더했지만 지체하지 않고 답사를 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65미터, 밑변의 한 변이 225미터에 달하며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와 견주어 높이와 크기가 절반 정도 된다고 한다. 태양의 피라미드에서 내려오자 벌써 돌아갈 시간이었다. 서둘러 버스를 타고 멕시코시티의 숙소로 돌아왔다.

소치밀코(Xochimilco)

멕시코 시티에서의 마지막 날의 일정은 멕시코 시티의 남부에 위치한 소치밀코를 방문해 봄으로써 시작했다. 운하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임대보트가 인상적이다. 소치밀코는 14~16세기 아스테카제국 시대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흔적이며 당시 귀족의 본거지다. 흙으로 쌓은 뗏목에서 꽃과 과일이 재배되



소치밀코의 카널

는 수상화원(floating garden)으로 유명하다.

소치밀코에는 아스테카 문명의 전통적인 농업방식인 치남파(chinampa) 시스템이 남아 있다. 치남파 시스템이란 수상화원을 말한다. 호수주변 지역에 쌓이는 수초와 호수바닥에 쌓인 침전토를 모아 얇은 곳에 진흙으로 눌러 쌓아 인공적

인 섬을 만든 것이 치남파다.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버드나무를 심거나 말뚝을 박는다. 치남파 주변의 수로는 수확물 운반을 위한 통로이고 물고기를 잡는 어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치남파 시스템으로 옥수수, 콩, 호박, 고추는 물론 화초를 재배했다.

멕시코시티는 원래 거대한 호수의 도시였다. 아스테카의 테노치티틀란도 수상 위의 도시였다. 살기 좋은 대형 분지 지역이지만 거대한 호수가 있었기에 이곳에 살던 원주민은 이 땅을 버리기보다는 호수를 잘 개간하여 쓸 만한 땅으로 만들었다. 치남파 시스템도 그러한 개간의 노력 중 하나였다. 이렇게 조금씩 개간을 한 것이 오늘날의 멕시코시티가 됐다. 그런 이유로 멕시코시티의 지반은 매우 약하다.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는 국립 예술의 전당도 공사 도중에 지반 약화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다. 과달루페 옛 성당도 건물이 지속적으로 가라앉아서 결국 새로운 성당건물을 지었다.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 강화도를 간척한 것처럼 간척의 역사는 매우 깊다. 그러나 대부분 간척은 갯벌이나 만이 잘 발달된 곳, 좁은 강이 흐르는 곳 등 간척하기 용이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치남파 시스템에서는 특이하게도 물 한가운데서 간척 작업을 한다. 물 한가운데 수초를 모으고 그것을 나무로 고정시키는 이 시스템으로 매우 넓은 지역까지도 간척을 하여 농사 짓던 아스테카 인은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소치밀코에서는 여전히 치남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요즘에는 옥수수나 콩보다는 꽃이나 식물을 재배한다. 보트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 비닐하우스가 많았다. 그 안에서 작은 선인장에서부터 꽃과 나무까지 상업용으로 재배하여 팔기도 했다. 화초는 빨리 시드는 탓에 대도시 중심까지의 접근

성이 매우 중요하다. 소치밀코의 치남파는 위치적으로 그러한 화훼 생산에 적당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양을 재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치밀코의 운하는 지난날 운송수단과 교통수단으로도 쓰였지만 오늘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용 배가 대부분이다. 재밌는 점은 배를 타고 소치밀코의 운하를 돌고 있노라면 타코를 파는 상인, 음료를 파는 아이들, 심지어 마리아치까지도 모두 배를 타고 운하를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이 불러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것. 이곳 주민들은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소치밀코의 운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코요아칸(Coyoacán)

소치밀코를 둘러본 후 코요아칸으로 향했다. 코요아칸(‘코요테의 장소’의 뜻)은 텍스코코 호수 주변의 작은 도시였다. 이곳이 독길로 아스테카의 수도인 호수에 있는 섬과 연결됐다. 21세기인 오늘날 산안헬과 코요아칸은 멕시코시티 바로 외곽의 농업공동체다. 도시가 확장되며 이들을 집어삼켰지만 두 지역 모두 원래의 식민 시대 건축물을 상당수 보존하고 있다.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거주지로 많이 이용했다. 북적거리는 시내 중심가보다는 산안헬과 코요아칸의 상대적 평안함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이 두 곳은 주말 여행지로서 일반 가족들에게도 인기 있다. 지난날 이 지역 주민 가운데 유명한 인사로는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그리고 1940년 코요아칸에서 암살당한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를 들 수 있다. 이들 세 사람이 살던 곳은 모두 박물관과 미술 화랑이 다수 있던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다. 오늘날에도



코요아칸의 카페 하로초

레스토랑과 특산품점이 넘쳐나고 코요아칸 공원과 산안헬 광장에는 주말마다 서는 공예품장이 유명하다. 식민 및 혁명 이전 시대의 멕시코 건축물이 산안헬과 코요아칸처럼 잘 보존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산안헬에서 코요아칸까지의 산책로는 이 구역의 중심부에 있는 두 개의 광장을 연결해 준다. 두



프리다 칼로의 집

곳 모두 주말시장으로 시내에서 유명하다. 시장 근처의 커피숍에서 매우 유명하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하로초 커피를 마셨다. 하로초는 베라크루스나 베라크루스 인을 나타내는 별칭이다. 그러므로 하로초 커피는 베라크루스 커피를 뜻한다. 동시에 베라크루스 지역에서 좋은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커피를 마신 뒤 코요아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 프리다 칼로의 저택을 찾아갔다. 프리다 칼로 박물관을 찾아가는 길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원색으로 지붕과 대문, 담장을 치장한 단층 저택들이 푸른 나무들과 잘 어우러져 있었다. 지진 피해가 작아 지난날 스페인 귀족층이 주로 거주한 지역이라고 한다. 조금 걷다 보니 곧 온통 파란색으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건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푸른색 톤의 벽색깔이 인상적이었다. 우울한 삶이었지만 그러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 프리다를 떠올려 보았다. 박물관 내부에는 프리다가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지낸 집을 그대로 개조하여 그림 몇 점과 습작들, 또 생전에 그들이 사용하던 식기와 가구를 배치해 두었다. 또한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 가까운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 전시돼 있었고 2층에는 작업실도 있었다. 이러한 전시물에서 두 화가의 작품 활동과 그들이 영유하던 일상생활, 그리고 그것이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층의 디에고의 침실엔 모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디에고가 외출해서 막 돌아온 듯한 느낌. 2층엔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프리다의 침실과 서재, 작업실이 있었다. 이젤에는 소비에트연방에서 추방당해 멕시코에 망명해 있던 트로츠키의 초상화가 미완성 상태로 놓여 있었다. 프리다가 한때 트로츠키와 연인관계였음을 상기시켜 주는 그림이었다. 프리다의 침실 옆엔 자그마한 아기 침대가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프리다의 슬픔이 그대로 느껴졌다. 허리와 골반 지지대를 착용하고 드러누워 공중에 거울을 매달아 자화상을 그린 프리다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녀가 사용하던 지지대도 전시돼 있었다.

프리다의 작품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답사를 위해 조사해 놓은 중요 작품들은 몇 점 없었다. 박물관 직원에게 물어 보니 프리다의 작품은 대부분 차폴테펙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아쉬웠지만 이미 멕시코시티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프리다 칼로 박물관을 뒤로 하고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기 위해 돌아왔다.

잘 있거라, 멕시코시티!

삼박사일 동안의 답사를 통해 멕시코시티가 던진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 짙은 스모그, 소칼로에 모여 있던 엄청난 인파, 거리에 깔린 경찰들... 대도시답게 멕시코시티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여느 대도시처럼 빈부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고급 상점이 늘어선 거리에서 쇼핑하는 크리오요와 그 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하는 원주민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한국인 집단거주지에서 한국인의 냄새를 맡은 것은 여행자인 우리에게 가벼운 안식과도 같았다. 낯선 외국 땅에서 보는 낯설지 않은 풍경—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한인 하숙집—과 한국 음식은 긴 여행과 고산병으로 인해 지쳐 있던 우리를 미소 짓게 했다. 멕시코시티는 위험하다는 소문, 그리고 분지지형의 특성으로 인한 짙은 스모그는 우리에게 긴장감과 흠칫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남겼다. 그래서인지 멕시코시티의 다른 많은 참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오지 않는 눈을 기다리다 못해 소칼로에 인공눈으로 소소하게 눈꽃축제를 벌이고, 그걸 또 즐기고 있는 멕시코시티의 시민들이란 작은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참으로 소박한 라티노가 아니던가!